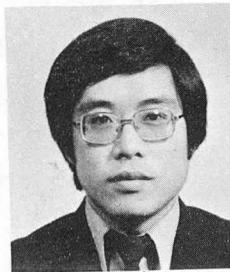


이 달 의 양 돈 시 황

3월 하순 약간 오름세 전망



함명운
(대한양돈협회 지도부)

양돈경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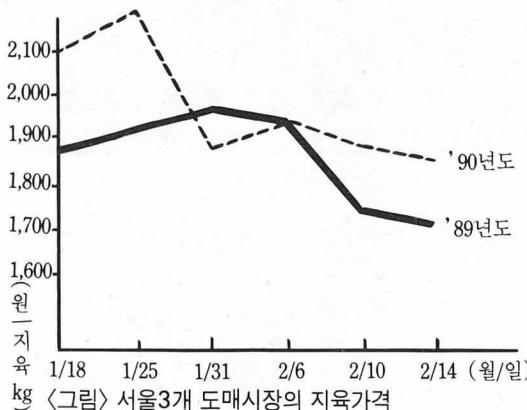
'89년 12월이후 계속된 연휴로 강세를 보였던 돼지값이 설날이후 약세로 반전되었다. 또 2월초순에는 1천8백원대에서 보합세가 형성되고 있다.

'90년 1월 18일부터 2월 14일까지의 전국 도매시장의 돼지고기 가격현황을 보면, 우선 서울 3개 도매시장의 평균가격은 1천9백83원으로 1년 전 같은기간의 1천8백80원보다 1백3원(5.5%)이 상승되었다. 이중 최고가격은 1월 25일의 2천1백 35원, 최저가격은 2월 3일의 1천8백46원으로 가격차이는 2백89원을 보였다. 그리고 총 경락두수는 18만9천1백70두로 전년동기와 비교해서 1만3백60두(5.8%)가 늘어났다.

인천지역의 총 경락두수는 2만6천5백9두로서 1년전 동기의 2만8천3백25두보다 1천8백16두(6.4%)가 줄어든 반면, 지육가격은 2천93원으로 1년전의 1천9백73원보다 1백20원(6.1%)이 상승되었다. 이중 최고가격은 2천2백10원(1월 24일), 최저가격은 1천9백36원(2월 14일)을 나타냈다.

대구지역에서는 최고가격이 1월 18일에 2천1백27원, 최저가격을 2월 8일에 1천8백42원으로 평균가격은 2천1백27원에 형성되었다. 1년전 같은기간의 1천9백90원과 비교해 보면 22원(1.1%)이 상승되었으며, 총 경락두수는 2만4천64두로 전년동기의 2만3천6백76두보다 3백88두(1.6%)가 늘어났다.

부산지역의 총 경락두수는 5만20두, 평균 지육가격은 2천39원으로 전년 같은기간과 비교해서 경락두수는 2천7백95두(5.9%)가 증가되었고, 지육가격은 1백35원(7.1%)이 상승되었다. 이중 최



고가격은 2월 12일에 2천1백19원, 최저가격은 1월 25일에 1천9백원을 나타냈다.

광주지역은 2월 1일에 최고가격 2천1백61원, 2월 8일에 최저가격 1천7백14원, 그리고 평균가격은 1천9백81원으로 형성되었으며, 총 경락두수는 9천4백37두로 나타났다. 전년동기와 비교해서 지육가격은 2백원(11.2%)이 상승되었고, 경락두수는 8백19두(9.5%)가 증가되었다.

또한, 전국 산지의 비육돈가격은 12만1천원으로 1년전 동기의 11만1천원과 비교해서 1만원(9.0%)이 상승하였다. 자돈가격은 3만원으로 전년 동기의 3만4천원보다 오히려 4천원(11.8%)이 하락되었다.

한편, 본 협회가 조사한 '90년 1월의 주요 12개 돈육수출업체의 수출현황은 총 물량이 8백85톤, 총 금액으로는 3백75만5천불로 '89년 1월과 비교해서 물량은 5백92톤(202.1%), 금액은 2백37만9천불(172.9%)의 급격한 신장추세를 보였다. 돈육통조림 수입현황은 '89년 1월부터 11월까지 2천3백26톤으로 '88년의 9백67톤보다 1천3백59톤(140.5%)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본 협회에서 조사한 '89년도 비육돈 두당 생산비는 10만6천원으로 이중 가축비는 2만5천원, 사료비는 5만4천원으로 가축비와 사료비가 생산비의 74.5%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산지

비육돈 9만4천원과 비교해서 두당 1만2천원씩의 큰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값 전망

농림수산부는 '90년도 돼지값을 '89년의 9만4천원보다 22.3%가 증가한 11만5천원으로 예상하였다. 월별 예상가격은 1월 11만5천원, 2월 10만5천원, 3월 9만5천원, 4월 11만5천원, 5월 13만원, 6월 13만원, 7월 11만원, 8월 11만원, 9월 12만8천원, 10월 11만5천원, 11월 10만원, 12월 12만7천원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3월은 가장 돼지값이 하락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돈육수급동향은 총 수요량이 49만5천톤으로 이중 국내소비가 48만톤, 국외소비(수출)가 1만5천톤으로, 그리고 국내소비중 육가공품 생산이 5만톤으로 예상하였다. 반면 생산량은 평균 모돈수를 70만4천두로 보아 47만9천톤으로 추정하여 1만6천이 부족할 것으로 보았다. 특히 1인당 돈육소비량을 11.2kg으로 '89년보다 0.1kg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축산관측협회(안)에 따르면, 모돈두수의 감소로 출하물량이 감소하고, 소규모 양돈농가의 사육두수가 급속히 줄었다고 밝혔다. 또 수입개방 압력 및 환경오염 단속 등으로 신규입식 농가의 참여가 침체되어 1/3분기에는 보합세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2~3월에 출하될 '89년 12월의 2~4월령이 전년 동기보다 2.0%가 늘어났으나, '85~'88년 사이에 분석한 소비계절지수는 2월은 7.5%, 3월은 8.1%, 그리고 가격변동율은 2월이 -10.8%, 3월이 -10.4%로 산출되어 1월과 비교해서 돼지값은 하락될 것으로 산출되었다.

그러나 육가공업체들의 물량확보가 거의 안된 상태이며, 농가의 출하물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2~3월의 돈가는 보합세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3월 하순에는 약간의 오름세로 전망된다. ■